

저소득층 노인의 실태에 관한 연구

황금희·정난희*·조명숙**

(동강대학 식품영양과·전남대학교 가정교육학과*
·동강대학 간호과**)

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급식서비스 영양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저소득층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20일~12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·영양문제를 도출하고 급식서비스 제공에 따른 영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수혜를 받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.44세, 신장은 158.50cm, 체중은 52.29kg 이었고 이로부터 구한 평균 체질량지수는 20.86kg/m²이었다.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열량 1,389.67kcal, 단백질 53.50g, 지질 26.20g, 탄수화물 234.41g, 섬유질 5.56g, 칼슘 481.15mg, 인 882.76mg, 철분 8.59mg, 나트륨 4,208.98mg, 칼륨 2,069.77mg, Retinol 408.69RE, Thiamin 0.84mg, Riboflavin 0.73mg, 나이아신 11.04NE, Ascorbic acid 80.63mg, 콜레스테롤 157.63mg 이었고,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양소 섭취 비율이 증가하였다. 수혜 장소는 교회 47.0%, 동사무소 32.5%, 복지관 20.5%이었고, 수혜 기간은 75세 이상을 제외하고 2년 이상이었다. 수혜 내용은 도시락 형태가 79.4%, 반찬만을 제공 받는 경우가 20.6% 이었다. 대부분 수혜 대상자들은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, 종교는 불교 5.9%, 기독교 38.2%, 천주교 23.5%, 무종교 32.4% 이었으며, 주거형태는 한옥 38.2%, 아파트 47.1%, 연립주택 14.7% 이었다.

수혜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양호 14.7%, 보통 38.2%, 불량 47.1% 이었고,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없다 20.6%, 보통이다 47.1%, 많은 편이다 26.5%, 매우 심하다 5.9% 이었으며, 운동상태는 없다 64.7%, 가벼운 운동 29.4%, 중정도 운동 5.9% 이었다. 흡연상태는 피운다 26.5%, 끊었다 5.9%, 안 피운다 67.6% 이었고, 흡연양은 피우는 경우 반갑 미만에서 한갑 정도였으며,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, 흡연기간은 15년~43년 이었다. 음주상태는 일주일에 3~4회 이상 5.9%, 한달에 1회 미만 8.8%, 끊었다 2.9%, 전혀 안 마신다 82.4% 이었고, 음주기간은 20년~50년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,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양이 감소하였다. 커피나 녹차 등의 기호음료는 대상자 대부분이 하루 1잔 정도 마시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양이 감소하였다. 수혜 대상자의 질병은 없다 8.8%, 고혈압, 심장병, 뇌졸중 52.9%, 기타 38.2% 이었고, 결식상태는 안 거른다 52.9%, 일주일에 1~2회 정도 20.6%, 일주일에 3~4회 이상 26.5% 이었으며, 대상자의 대부분은 과식과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, 외식을 하는 경우 한식을 대부분 좋아하였다. 또한 육류, 피자류, 튀김류 등은 거의 먹지 않았고 김치류, 과일류 및 야채류 등의 섭취는 양호하였다.